

기획특집논문

규율과 통치: 조직연구에 있어서 Michel Foucault 권력론의 함의와 기여*

은 재 호**

- I. 서론: 왜 다시 Foucault인가?
- II. 감시와 처벌: 규율과 통제의 기제
- III. 통치성: 유인과 자기통제의 기제
- IV. 결론: Foucault 권력론의 함의와 기여

〈요약〉

이 글은 Michel Foucault가 정초한 권력의 개념이 조직학의 후속연구에서 어떻게 계승·발전되는지를 살펴보는 메타 분석을 통해 푸코 철학의 함의와 기여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글에 따를 때, Foucault는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이라는 두 가지 권력개념을 정초했다. 근대적 형태의 조직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억압적 통제기제를 발전시켜 왔다는 규율권력 개념은 현대 조직의 기초를 이루는 다양한 관리기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생명권력 개념은 이 다양한 관리기술이 어떻게 보다 인간적인 얼굴로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 통제를 유도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주목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Foucault의 권력개념을 계승하는 조직 연구는 첫째, 조직의 규율화를 위한 권력의 개입방식에 대한 연구 둘째,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을 유도하는 통치의 기술과 원리에 대한 연구 셋째, 자발적 관리를 통해 조직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진 개인의 통치 방식(주체화)에 대한 연구 등, 세 가지 층위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층위 가운데 세 번째 연구영역 즉, Foucault가 후기에 이르러 모색한 주체화의 양식이 조직 연구에서 얼마나 반영 또는 창조적으로 계승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하며 향후의 연구 아젠다로 주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 일례로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소개하며 그 기여와 한계를 간략하게 논한다.

[주재어: 미셸 푸코, 조직, 규율권력, 생명권력, 통치성, 아비투스]

* 이 글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에 빚지고 있다. 조직학회 월례 세미나에서 푸코 권력론의 행정학적 의미를 환기시켜준 이문수 교수님과 이 글의 완성을 격려해주신 정창화·김호섭·윤건수 교수님, 그리고 유익한 비판으로 이 글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자료수집과 편집에 수고해준 한국행정연구원 김효림·장한나 연구원의 도움도 잊을 수 없다. 우연한 기회로나마 ‘청바지 씹어 먹고 살던 시절’의 수강노트를 다시 펼쳐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다.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eun@kipa.re.kr)

I. 서론: 왜 다시 Foucault인가?¹⁾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1926년 10월 15일, 프랑스 중서부(프와티에)에서 태어났다. 클레르몽-페랑 대학 심리학과 교수와 파리 8대학 철학과 교수, 프랑스 학술원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1984년 6월 26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파리에서 사망했다. Foucault는 프랑스 태생으로 프랑스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했지만 프랑스에서 보다 영·미 권에서 더 많이 읽혀지고 더 널리 알려졌다. 학부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했지만, 동성애자와 역사학자로 더 자주 기억되는 Foucault는 근대에서 현대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전환기의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더욱 유명하다(Cusset 2003: 2).

‘포스트 모더니스트 Foucault’의 저작은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 포섭되며 문화적 분화(differentiation)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제도와 권력의 배일을 벗기는데 활용되었다²⁾. 그럼으로써 Foucault의 철학은 우리의 삶과 인식, 사회구성체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수한 세계관이나 이념적 입장을 지닌 ‘소수자’나 ‘주변인들’의 현실 인식을 정당화하는 수단인 것처럼 이해되곤 했다(김부용 2010: 241). 한국에서 소수 인문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소개되던 Foucault 철학이 본격적으로 인식의 지평을 달리한 것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쟁이 촉발되며 Foucault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거론되면서 부터이다. 양자의 논쟁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모더니즘을 변호한 Habermas(1981)가 ‘Bataille에서 Foucault를 거쳐

1) 이 글은 영어 원문과 불어 원문을 포함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어 원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 Foucault의 저작은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드러내고 정당화하고자 했던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정상적인’ 성 행위의 규범을 제도화된 질서로 간주하고 이에 저항하는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페미니즘이 출발하는 sex(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 sexuality)와 gender(후천적으로 형성된 성)의 구분을 거부하며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은 제도적 지배담론의 산물일 뿐이고, 성 정체성이란 반복적인 모방과 실행을 통해 문화적으로 구성된 결과물(artifact)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성 정체성의 관념을 해체하며 퀴어 이론(queer theory)으로 정립된 이들의 주장은 동성애를 이성애의 권력적 입장에서 억압하거나 금지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Butler(1990)의 주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Derrida에 이르는'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겨냥할 때 절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Habermas와 속칭 '포스트 모던 계열의 프랑스 철학자들'이 정의하는 근대성(modernity)의 개념이 일치하는지도 불확실하고(Dreyfus & Rabinow 1982: 109), Foucault는 물론 Derrida 역시 자기들의 저술에 영·미권 학자들이 붙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례명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했지만 Foucault는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렇다면 Foucault의 무엇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를 이루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함의는 무엇인가? 한때 한국에서 유행처럼 논의되던 Foucault의 중심개념들을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논쟁이 미완의 논쟁으로 끝났을 뿐 아니라 Foucault의 사유체계가 사회과학 일반, 특히 행정현상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학의 '상식'(중심적 패러다임)에 던지는 도전의 폭과 깊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행정학이 '오랫동안 기술주의적 성향에 포섭되어 (...)행정을 권력 바깥에서 작동되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행정에서 권력관계가 은폐되는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는 김동원(2009: 2)의 언급은 Foucault 철학이 한때의 유행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준다. 또한 '정작 국가권력의 현실적 적용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행정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행정권력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문수(2010: 940)의 진단은 정부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기술자문(expertise)이 '가치중립'을 함축하는 '전문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한, Foucault의 복귀가 정당함을 웅변한다).

다만 규범과 주체 형성의 역사, 권력의 유형, 통치의 본질,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규율방식과 자기 규율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진 Foucault의 문제의식을 모두 한데 버무릴 때 Foucault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형성된다면, 이 글은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조직연구에 남긴 Foucault 철학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Foucault의 방대한 사유체계를 종합하지 못하는 필자의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Foucault가 관심을 가진 규범의 형성과 통제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조직과 관리의 속성에 대한 탐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Foucault의 저작은 대부분 경험적 사례를 찾아내고 재구성하는 사례연구

3) 전문가 집단의 기술자문에 대한 성찰은 Callon(1998), Collins & Evans(2002, 2007) 참조

에 의존하고 있으며 Foucault가 분석한 사례는 병원, 법원, 감옥, 학교, 공장 등으로 이들은 모두 조직의 전형이다. 이처럼 Foucault 자신이 선호 했던 경험적 연구대상이 모두 조직이었음을 기억한다면 Foucault가 조직 연구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보며 조직 연구의 범주 안에서 Foucault 철학의 함의와 활용(use)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더욱이 Foucault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어진 ‘정상적인 것’이란 애초부터-선형적으로-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정상화(normalization) 테제를 주장했다⁴⁾. Foucault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정상화의 과정을 거쳐 주어지는 것이라면, 정상화는 활용의 과정을 거쳐 강화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원저의 독해만큼이나 원저의 해석과 활용이 중요한 이유이다⁵⁾.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조직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규율의 문제와 통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Foucault는 논리적(형이상학적) 추론보다 고고학과 계보학을 통한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관찰을 선호했다는 점에서 ‘정

4) Foucault의 언어세계에서 규율과 규범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한 쌍의 동의어로 나타난다. Foucault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진행된 근대사회의 형성을 규율화를 통한 규범의 정착과정으로 파악하며 규범이 그 자체로 정상으로 인식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규율화와 규범화의 과정이란 곧 정상화의 과정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초월적(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사회적)이라는 것이 Foucault의 명제이다. 실제로 Foucault가 열람한 18세기 사료는 구체제(Ancien Régime)와의 단절을 시도한 프랑스 대혁명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지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자 한 시도이며, 정상화라는 단어는 그 시대의 구호이기도 했음을 증언한다. 일례로 Foucault가 졸업한 고등사범학교의 원어명은 *Ecole Normale Supérieure*로서 영어로 직역하면 Superior Normal School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고등정상학교’이다. 교명을 정상학교로 붙이게 된 이유는 이 학교가 프랑스 대혁명(1789) 이후 5년이 지난 1794년에 개교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고등정상학교의 교명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학교들이 모두 가톨릭 사제들에 의해 운영되어 교권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대 혁명가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 고등정상학교를 사범학교로 번역한 것은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기능을 고려하여 의역한 일본어 역을 한국어 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예를 들어 뒤이어 살펴보게 될 생명권력의 개념은 Foucault가 생존해 있던 당시 보다 사후에 Agamben(1998)의 해석에 힘입어 후학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주체의 개념은 Foucault 철학체계에서 중심적 개념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지만, Foucault 자신조차 그것이 자신의 사유체계에서 중심적 개념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은 그의 후기에 이르러서였다(Dreyfus & Rabinow 1982: 297). 의미의 해석이 발화(*énonciation*)와 수용(*réception*)을 통해 확장되고 전환되고 전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통' 철학계의 이단아로 간주되곤 했다. 또 역사학자라고 하기에는 사료의 독해방식이 '정통' 사학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때문에 사회과학 일반에서 Foucault를 수용하고 활용한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철학계도, Foucault의 연구방법이 빛지고 있는 역사학계의 아날학과(*Ecole des Annales*)도 아니었다. Foucault의 초기 저작들이 출간된 1970년대부터 Foucault의 권력론을 수용한 연구자들은 다름 아닌 영·미 권 경영학의 조직론 연구자들로서, 이들은 조직의 관리행태와 조직 내 개인의 행태를 연구하는데 Foucault의 저작을 활용하였다(Hardy & Clegg 1999). 따라서 이 글은 행정학이 아니라 경영학의 조직론 연구자들이 생산한 2차 저작들을 우선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Foucault가 개진한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규율권력의 개념과 그로부터 파생된 조직 연구의 동향을 일별하고(II. 감시와 처벌: 규율과 통제의 기제), 이어서 생명권력의 개념과 그로부터 파생된 조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III. 통치성: 유인과 자기통제의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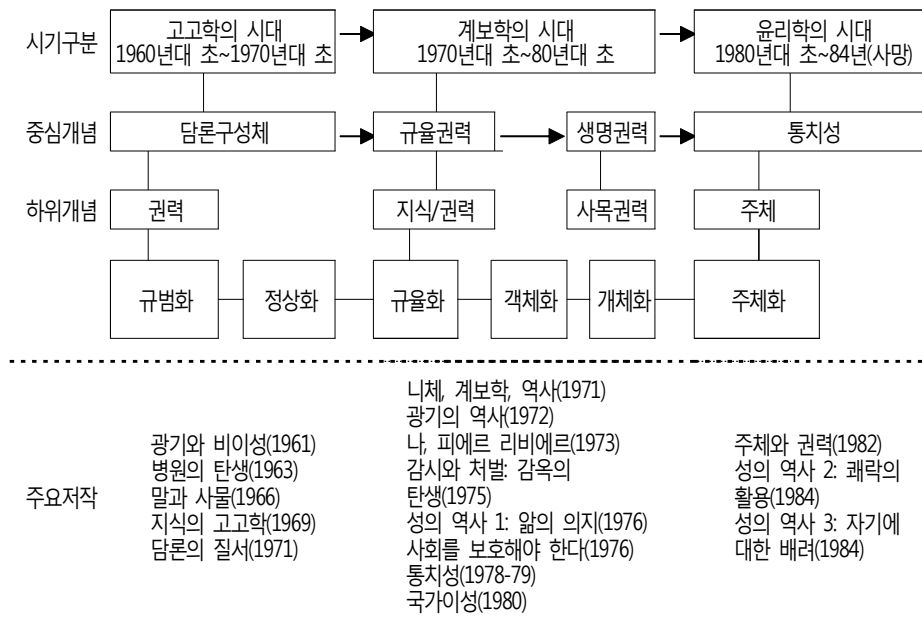
II. 감시와 처벌: 규율과 통제의 기제

Foucault는 『주체와 권력』(Dreyfus & Rabinow 1982)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지적 편력을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cf. <그림>). 첫 번째 시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이르는 고고학의 시대로서 인식론적 탐색과 몰입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저작은 과학지식, 특히 인문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독해에 할애된다. 1969년에 출간된 『말과 사물』은 Foucault를 대중화한 첫 번째 저작으로서,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을 통해 '담론은 모든 사물의 존재 규칙을 규정한다'는, 담론구성체(*formation discursive*)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두 번째 시기는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계보학의 시대로서, 이 시기는 주체의 대상화 또는 객체화(objectification)의 실천양식에 관한 연구에 할애되었다. Foucault는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1975)에서 권력이 작동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기술하며 권력의 속성을 규율권력으로 규정했다. 이 시기의

Foucault는 팬옵티콘(panopticon)을 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상징하는 은유로 제시하며 규율화(disciplinarisation)의 기제를 분석하는데 주력했다. 권력에 대한 Foucault의 연구는 이후 70년대 후반에 생명권력의 개념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생전에 발표된 저작에서는 생명권력이라는 명칭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지만, 권력의 속성을 상세하게 논의한 『성의 역사 1: 얇은 의지』(1976) 마지막 장은 이미 권력이 더 이상 감금하고, 억압하고, 금지하는 규율(discipline)이 아니라 허용하고, 조장하고, 장려하는 생산(production)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림〉 Foucault 사상의 전개 양상



세 번째 시기는 이후 사망할 때까지로, 윤리학의 시대이다. 이 시기는 앞선 계보학의 시대에 대상화(객체화)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체화(subjectification)시키는 양식에 관한 연구에 할애되었다. ‘쾌락의 활용’(1984b)과 ‘자기에 대한 배려’(1984c)라는 부제가 붙은 『성의 역사』 2권과 3권에서 Foucault는 더 이상 규율과 통제의 기술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객체화와 주체화

의 갈등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나 자신’이 산출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지를 추적하고자 했다.

이 세 시기 가운데 조직연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시기는 두 번째, 계보학의 시기이다(Pezet 2004: 171). 물론, 계보학의 시대는 고고학의 시대에 정초된 권력과 감시, 지식과 정상화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정치적·위계적 구조는 권력관계의 전형을 이루며, 개인들 간에 형성된 이 권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지식과 권력이 상호작용하며 감시와 통치의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는 것이 Foucault의 첫 번째 명제, 규율권력의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시는 통치의 기술로 환원될 수 있으나 조직의 통치는 규율로 환원되지 않으며, ‘가장 세련된’ 조직 내 규율은 각 개인에게 자기 감시(*surveillance de soi*)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 Foucault의 두 번째 명제, 생명권력의 개념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고고학의 시대와 계보학의 시대 전반기에 형성된 첫 번째 개념, 규율권력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규율권력의 탄생

계보학의 시대는 폴레쥬 드 프랑스 취임강의를 채록해 출판한 『담론의 질서』(1971a)와 『니체, 계보학, 역사』(1971b)와 함께 시작한다. 여기에서 Foucault는 니체에게서 ‘삶의 의지’라는 표현을 빌려 권력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Foucault 저작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는 『광기의 역사』(1972)와 『성의 역사』 1권(1984a)에서 다루어진다. 역사적 접근을 통한 긴 서술형식의 글이지만 개인의 행동양태를 규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며 지식과 권력의 상호배태성을 기술하기 위해 권력/지식 또는 지식/권력이라는 신조어를 제안한다(Russ 1980: 11). 권력/지식 또는 지식/권력이라는 신조어에 함축된 Foucault의 주장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실체론과 관계론으로 나누어지는 전통적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Foucault는 관계론적 입장을 취한다⁶⁾. Foucault가 권력을 ‘다소 조직되고, 위계적

이며 조정된 관계의 총체'로 본다는 것은 권력이 제도도, 구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주어진 힘도 아니며 다만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Foucault(1994: 750) 자신도 '내가 권력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나는 권력을 실체(substance)로 보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통적인 관계론자들에게뿐 아니라 Foucault에게도 권력은 관계망이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립하는 적대자들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지칭하는 술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권력은 국가가 독점하는 정치권력의 형태로 뿐 아니라 사회의 도처에 잠복되어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 부모, 교사, 의사와 같은 특정 개인이 자녀, 학생, 환자와 같은 다른 개인들에게 그리고 학교, 감옥, 병원과 같은 특정 제도가 학생, 간수, 환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담론 속에도 권력은 존재한다고 한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을 특별히 미시권력(micro-power)라고 불렀다.

그런데 Foucault가 기존의 관계론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다소 위계화된 개인들 간의 관계로 상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력이 작동되는 구체적인 방식 즉, 권력의 전략을 경험적 사례를 통해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Foucault(1994: 751)가 던진 질문은 '권력관계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 권력관계는 어떤 수단을 통해 성립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식의 질서 안에서 이 권력관계가 생산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등의 몇 가지 포괄적인 질문'이었다⁶⁾. Foucault가 제안하는 권력은 힘의 균형이 깨지고 어느 일방이 우위에

6) 정치학의 전통적인 권력론은 실체론과 관계론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실체론은 권력이 명백한 실체를 가져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흔히 Watrtenberg(1990, 김부용 2010에서 재인용)의 표현을 빌려 'power to'로 그려지는 실체론은 Foucault 역시 인용한 바 있는 Hobbes의 개념에 의존하여 '환경의 지배를 통해서 목적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능력'(Hobbes 1968: 150)을 권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권력은 양적으로 확인하고 측정될 수 있는 속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실체론은 권력이 영향력과 통제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한다. 반면 관계론은 'power over'로서 권력의 행사가 대상에게 직접 이루어지기보다 행위자 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관계론은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이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권력의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본다. Foucault 역시 이같은 관계론의 관점에서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라는 질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7) Foucault는 1970년대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고등사범학교에 재학하며 Althusser의 강의를 듣고,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기도 했던 Foucault는 당시 프랑스 공산당과 사회당의 이념 투쟁에서 불거진 국가론 논쟁이 18세기 이래로 국가에 대해 지속

섰을 때 일방적인 지배나 억압 혹은 파괴적 폭력으로 회귀하지 않고, 지식의 형성과 지식의 실천을 매개로 개인의 육체라는 물리적인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작동된다.

Foucault는 이를 근대 자본주의 권력의 ‘전략’이라고 하며, 이 전략을 규율(discipline)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Foucault는 이 규율이 감시의 장치를 통해 작동한다고 하며, 이 장치를 팬옵티콘(panopticon)이라는 은유로 설명했다. 팬옵티콘은 공리주의자 Bentham이 고안한 건축 구조물로서 건물 한 중앙에 원형 탑을 만들고 그를 중심으로 죄수들의 방을 동글게 배치한 원형감옥이다. 햇빛이 건물 외부에서 죄수들의 방을 비추어 간수들은 중앙에 세워진 원형 탑에서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지만, 죄수들은 어둠 속에 드리워진 간수를 볼 수 없다. 죄수들은 항상 간수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간수들은 죄수들의 시선으로부터 숨겨져 있어 하나는 볼 수 있되 보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볼 수 없는데 보이는데서 시선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죄수들은 간수들이 없는 순간에조차 간수들의 감시를 의식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를 감옥의 규율에 합당하게 속박한다는 것이 팬옵티콘의 효과이고 감시의 효과이다.

Foucault는 이 지점에서 ‘공장과 학교, 병영과 병원이 감옥과 닮았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단 말인가’(Foucault 1975: 229)라고 자문하며 시선의 비대칭성이 비단 감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관통하며 감시의 일반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Foucault(1975: 201)는 ‘규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는 기술은 권력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억압 수단은 억압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썼다. 여기에서 시선(gaze)은 지식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란 권력을 의미한다. Foucault는 지식과 권력의 이러한 관계를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1975)에서 규율화(disciplinarisation)의 기제라고 이름 붙인다. 그리고 이 규율화를 위해 필요한 장치를 지식이 제공함을 지적하며 지식과 권력의 복합체를

되어온 두 가지 관점 사이를 반복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 진단을 바탕으로 권력이 실제 행사되는 방식을 객관화함으로써 국가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우회적 연구전략을 세웠다. 이 시기에 지배적인 국가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국가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어떤 형태의 국가(사회구성체)를 건설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지배와 착취의 계급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도구적 세계관이다.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⁸⁾.

권력/지식 또는 지식/권력이라는 신조어가 의미하는 두 번째는 서구 철학이 오랫동안 숭배했던 과학의 자율성 혹은 지식의 순수성이란 허구이며,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권력을 지지하지 않는 ‘참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Foucault가 모든 지식이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데올로기 개념 뒤에는 이데올로기가 표상하는 허구와 구분되는 진실 또는 진리의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지식 대 권력, 진실(또는 진리) 대 권력이라는 이분법이 숨어있다. 여기에서 Foucault는 서구 형이상학의 오랜 전통과 결별하고, 진실 또는 진리 역시도 권력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Foucault는 모든 지식이 처음부터 ‘참’인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거짓’도 아닌 ‘담화’로부터 생산되는 ‘진실의 효과’일 뿐이라고 말한다(함재봉 2005: 150). 그리고 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은 권력의 작동에 정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생산하는, 상호 생산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Russ 1980: 14-16).

Foucault가 권력/지식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살펴 본 구체적인 경험 현상은 ‘구별 짓기’이다. 이 구별 짓기는 정상인과 정신병자, 의사와 환자, 교사와 학생, 간수와 죄수 사이에 형성되는 유동적 관계(*relation fluide*)에 대한 관찰이며 Foucault가 주목한 것은 이 관계를 구별짓는 구체적인 기술이다. Foucault는 역사적으로 관찰 가능한 제도로 먼저 병원을 들고 있다. Foucault는 『광기의 역사』(1972)에서 의학지식의 형성과 사용양태를 관찰하며 의사들과 정치권력이 이성과 비이성(*dérison*)을 어떻게 구별 짓는 지 살펴본다. Foucault의 관찰에 의하면, 유럽의 정신병자들은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인과 섞여 살았다. 그러나 18세기에 계몽주의가 태동하며 정신병자들이 격리되고 감금되었는데, 이 격리와 감

8) 따라서 권력의 전략인 규율의 뒤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육체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모범생’, 직장에서의 ‘우수사원’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건설된 규범과 이 규범에 따른 판단이 잠복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가 모범생이 아니며, 모두가 우수사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하나는 이미 이렇게 사회화된 개인의 육체를 ‘온순한 몸’(*corps docile*)으로 변화시켜 권력의 의지를 보다 쉽게 실현시키는 것이 권력의 목표임을 의미한다. 규율의 목적은 ‘사회적 몸 또는 온순한 육체를 길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Foucault의 명제이다.

금은 정신병자들뿐 아니라 부랑자, 게으름뱅이, 가난한 사람 등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정신병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인들은 경제활동 공간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근대 자본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병자들만 보다 특수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유일하게 감금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감금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 짓는 의학지식에 기초했다. Foucault는 이 지점에서 이성이 사회규범으로 등장하며, 비이성에 대하여 권력으로 작동했음을 지적한다.

지식과 권력의 관계는 사법제도에 대한 관찰에서도 드러난다. Foucault는 『나, 어머니와 누이와 남동생을 목 졸라 살해한 피에르 리비에르: 19세기의 친족살해 사례』(1973)라는 공동저작에서 1835년에 가족을 살해한 피에르 리비에르의 공판 과정을 살펴봄에 사법체계 안에서 의학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분석한다. Foucault에 따를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법과 규정이 아니라 지식이다. 왜냐하면 의학지식이 그를 정신병자로 판정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피고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Foucault가 바라보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는 명쾌하다. ‘지식은 더 이상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은 판단하기 위해 존재 한다’(Foucault 1971b: 148). 더욱이 지식은 행위의 규범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사법적 규범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보다 일반화된 방식으로 개입하며 일상적인 생활 규범의 기초가 된다. 여기에서 지식은 그 자체로 권력으로 기능하는 한편, 질서를 추구하는 권력의 의지를 대변한다(Russ 1980: 16).

2. 조직연구의 동향

병원과 감옥을 사례로 근대적 지식이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규율과 훈련에 기반을 두는 일상생활이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미시적으로 관찰한 Foucault의 저작에서 영감을 받은 대부분의 초기 연구는 주로 『감시와 처벌』에 기초해 조직에 대한 연구를 전개했다. 그 첫 번째 연구는 조직 내 권력현상이 아니라 주로 회계 시스템의 효과에 관심을 가진 회계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Hopwood(1987)는 기업에서 회계가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개인에 대한 감시의 기술이기도 함을 지적한다. 회계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와 조직구조가 조율하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며, 개인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 혹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ITTC(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의 조직구조를 연구한 Hopper & Macintosh(1988)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회계가 조직에 대한 통제에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Miller & O'Leary(1994)는 평균비용 산정이 조직구성원의 행태를 표준화(규범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회계라는 기술이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처벌과 보상의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Jackson & Carter(1998)는 현대 조직에서 감시의 기제가 대개의 경우 눈에 띄지 않음에 주목하며, 조직에서의 활동이란 단순히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적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기'의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예를 들어 McKinlay & Starkey(1998)가 분석한 GM(General Motors)의 경우 CEO인 Alfred Sloan이 조직구조를 사업부 체제로 개편하고 자본회수율을 기초로 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숫자에 의한 통제가 직접 통제를 대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Sloan의 뒤를 이은 John MacNamara는 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매월 결과보고를 받아봄으로써 조직에 대한 원거리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McKinlay & Starkey의 결론이다.

Townley(1994)의 연구는 현대 조직이 사용하는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대부분이 개인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기술이며 개인을 분류(classification)하고, 통제(control)하고 조정(coordination)하는 기술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Townley(1994: 13)에 따를 때, 기업의 인사관리는 세 종류의 지식에 기반 한다. 수행할 작업에 대한 지식, 작업장에서 필요한 인력규모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작업자 개인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지식을 생산하면 이후에 작업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열개를 짚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 세 가지 지식으로부터 작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분류하고, 작업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각 개인을 차등화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식의 도구화는 이처럼 개인을 구별 지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직접 노동력과 간접 노동력, 생산적 노동력과 비생산적 노동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거니와, 그것은 개인을 선별하고 규율하며 평가하는 도

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규범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처방을 수용하는 주체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Bhimani(1994)는 17세기 매뉴팩처를 분석하는 역사적 고찰을 통해 조직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된 경우는 노동자 자신이 조직에서의 노동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뿐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Savage(1998)는 19세기 영국 철도사업 조직을 분석하고 경력관리제도가 규범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음을 지적한다. 영국 철도회사는 철도의 안전성은 물론 정시 출발과 정시 도착으로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어 상업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는데, 이때 영국 철도회사는 철도 노동자들을 규율하기 위해 직접 통제와 감시체제는 물론 경력관리제도를 함께 시행해 철도 노동자들이 조직의 규범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Gay, Salaman & Rees(1996)는 기업이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 규율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이상적인 기업인’ 상(像)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업인의 이상형을 ‘유능한 관리자’(competent manager) 담론에서 찾아냈다. 경영학 지식이 생산해 낸 ‘유능한 관리자’에 대한 담론은 경영행위를 능력에 따른 조직에 대한 기여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고 드러내는 능력 즉, ‘자기의 경영’으로 정의한다. 조직을 잘 관리하는 자가 유능한 관리자라면, 유능한 관리자는 조직 이전에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관리하고 또 구성원들의 자기개발을 유도할 줄 아는 자라는 믿음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다. 대형 서점의 신간코너에 넘쳐나는 수많은 자기개발서와 코칭(coaching)에 관한 경영학 서적은 이러한 믿음이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같은 관찰은 앞서 언급한 감시의 기술로서의 회계(Hopwood 1987)가 단순히 통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윤리 강령을 정의하는 수단이 된다는 Fox의 분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Fox(1989: 727)는 윤리강령은 개인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징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자기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다. 김동원(2009)은 한국의 참여정부가 진행한 일련의 정부혁신 전략을 고찰하며, 이를 혁신의 주체세력이 적용 대상(공무원)들

을 객체화하고 복종시키려는 규율적 전략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효과적 도구로 정보공개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위계적 감시, 서열화와 징벌을 통한 규범화의 판결, 그리고 행정학의 권력/지식이 생산한 시험제도를 제시했다.

규범이 생산되는 곳은 비단 조직의 관리체계만이 아니다. Fox(1989)는 Foucault의 예를 따라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생산하는 주요 거점이 교육체계라고 진단했지만, Jackson & Carter(1998)는 조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자신도 규범의 생산자라고 말한다. 더욱이 관리에 대한 담론 자체가 우리가 현상을 지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조건 짓는 생각과 실천 모두라면(Knight & Morgan 1991: 253), Alvesson & Deetz(1996)는 관리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규범이 함께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담론이 조직을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자임을 의미한다. Knight & Morgan(1991: 255)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론은 주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정함으로써 주체의 정당한 행위와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구별 짓고, 이를 통해 규율체계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III. 통치성: 유인과 자기통제의 기제

이상의 연구에 따를 때, 조직 관리는 감시와 통제의 도구를 고안하고 작동시키는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관리체계는 곧 규율체계이고, 관리는 개인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Pezet 2004: 177). 우리가 사는 일상적 경험 역시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통제와 규범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제와 규범화의 장치도 끊임없이 개선되는데, 그 선봉에 바로 연구자들 자신이 서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반면, 우리는 개인에 대한 통제와 규범화가 끊임없이 개선된다고 해서 주어진 조직 내에서 인간의 행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의 성품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학교와 군대에서 수많은 일탈과 저항을 경험했고 어느 조직에서든 감시가 있는 곳에 일탈이, 처벌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즉, Foucault의 표현대로 감시와 통제의 기제가 ‘도처에 있다’(omnipresent)면, 일탈과 저항 역시 도처에 있다는 것이다.

Bain & Tayler(2000)의 연구 역시 전화국 직원들의 행태조사를 통해 조직의 규율체계 안에서 일탈과 저항이 필연적인 것임을 논증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감시와 처벌의 기제에도 불구하고 왜 일탈과 저항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Bain & Tayler(2000)는 그것이 감시에 의존하는 관리체계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통제와 규범화를 통한 규율체계는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는 조직 내에서 통제와 규범화의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에 대항하는 저항의 기술 역시 발전하며, 어떤 기술로도 완벽한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atchuel(1999: 515)의 연구는 통제의 기술이 진화하면 진화하는 만큼 통제를 벗어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관리자와 종업원의 행태 역시 진화해왔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감시와 통제에 기반을 두는 관리가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 역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시와 통제의 기제를 거부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이미 관리자층에서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차원에서 Foucault의 문제의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미 팬옵티콘이라는 은유는 권력이 감시자 밖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Foucault에게는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감시자의 행태는 물론, 감시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절대 주권자의 감시와 통제 방식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지점에서 Foucault는 팬옵티콘의 은유로 전개한 감시와 통제의 기제를 통치성(governmentality) 테제로 발전시키며 감시받는 자들 뿐 아니라 감시하는 자 즉, 관리자들까지를 감시하는 근대 국가 권력의 실체를 더욱 명쾌하게 파헤치고자 했다. 통치성 개념을 논하여 Foucault(1980: 82)는 ‘공법학에서 말하는 의미의 국가 통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와 직·간접적 영향력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에 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고 썼다. 이는 왕이나 권력자와 같이 개인화된 주권에 의지하는 통치성이 아니라 체제 내에 침윤된, 체제 고유의 통치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 행위의 기술적이고 인간적인 장치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Foucault에 따를 때 체제의 통치성은 ‘권력 복합체이지만 특정한 형태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절차,

연구와 분석, 계산과 전술 일체로서 지식과 정치경제의 형태로 개입한다. 개입의 주요 대상으로는 전 인구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질서유지 장치를 사용한다'(Foucault 1978: 655). 곧, 통치성이란 '인간의 행태를 규율하는 방식'(Foucault 1984d: 582) 전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Foucault는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수없이 존재하는 감시와 통제, 처벌과 규율의 장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내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둘째, Foucault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수용하고 용인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자면 Foucault는 우리의 경험세계에서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많은 일탈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복보다는 체제 안정이,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그리고 일탈과 저항보다는 순응과 복종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대립된 관찰을 통해 순응과 복종의 기제를 연구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감시자들과 관리자들에 왜, 그리고 어떻게 주권자의 의지를 현실에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지, 그 순응과 복종의 기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자기와 타인의 통치'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저작들을 출간했다. 1978년에서 79년까지 끌레쥬 드 프랑스에서 행한 공개강의는 『통치성』을 주제로 했고, 1980년에는 『국가이성』을 출간했다. Foucault는 이 지점에서 17세기에 시작해 18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합리성이 태동했다고 관찰하며 여기에서 통치성의 개념과 함께 생명권력의 개념을 길어 올렸다. 이는 당시에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의문 즉, '자본주의 체제가 몰락하지 않고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 질문에 대한 탐구이지만 그 해답은 여전히 미시권력이라는 자신의 문제들 안에서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Foucault적인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제 Foucault의 관심은 감금이나 규율, 또는 통제의 기제로 각 개인에게 행해진 미시적 권력의 작동방식 뿐 아니라, 집단적(또는 일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또는 국가)의 정치적 주권이 작동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문제의식이 앞서 살펴보았던 규율권력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 이미 『감시와 처벌』에서 전개한 규율권력의 관점을 생명권력의 관점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Lascoumes 2007: 175).

1. 생명권력의 탄생

Foucault(1975: 186)는 먼저 ‘19세기의 산업 자본주의가 정초한 규율권력은 중세 후반의 주권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통치자의 기술과 노하우란 정복과 권력보유의 능란함에 다름 아니라는 마키아벨리(『군주론』 1552)의 권력 개념과 결별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Foucault에게도 권력이란 합리화와 기술화의 과정을 통해 중앙집권화된 권위를 바탕으로 행사되는 군주의 주권이 아니라, 통치 도구(장치)와 지식체계에 기반을 두는 기술과 전략을 의미한다. 다만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에서 주목할 부분은 통치의 기술과 전략이 이제 개인을 넘어 새로운 대상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대상이란 인구(population)로서, Foucault는 국가에게 인구란 곧 노동력이며 잠재적 부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음을 상기시킨다(cf. 이문수 2010: 950).

아울러 Foucault는 여기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의 변화가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의 변화 역시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장려하고,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은 더 이상 전쟁이나 세금 징수 등의 형태로 드러나는 정복과 지배의 형태로 발현되지 않고, 프로이센의 관방학처럼 경찰과 행정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Foucault의 분석이다. 여기에서 Foucault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때 형성되는 국가가 민주적인지 혹은 권위적인지가 아니라 비로소 시민사회가 국가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는 것, 즉 권력이 물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와 실행양태가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명령과 제재에 기반 하는 하향적 권력을 대신하여 개체화된 행위자(개인)는 물론 집단적 행위자(인구)를 규율하되, 그것도 원격에서 통제하는 구체적인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진단한다(Lascoumes 2007: 177).

Foucault는 이러한 맥락에서 ‘통치의 기술’이라는 개념을 전개했다. Foucault는 자신의 저작에서 통치의 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권력은 전

략적 관계, 통치의 기술, 지배 상태 이 세 가지 층위에서 행사 된다'고 썼다 (Foucault 1984a: 728-729). 여기에서 '전략적 관계란 자유로운 주체들 간의 전략적 게임으로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고 이에 대해 다른 일방이 저항하거나 혹은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전략적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관계의 우위에 서서 다른 일방의 행태를 규제할 수 있을 때, 지배(domination) 상태가 전개된다. 통치의 기술은 지배 상태와 전략적 관계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Foucault는 이를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규율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제도를 관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Foucault는 '지배 상태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 기술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Foucault 1984a: 729).

Foucault에 따를 때, 통치의 기술에서 중심적 활동을 이루는 것은 '기술적 절차'와 '도구(화)'이다. 그러나 이는 Weber 역시 관료제 이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법적·제도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만큼 Foucault만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Lascoumes 1995: 179). Foucault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부분은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정치적 권위와 행정행위의 대상을 이루는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양식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수단을 기술적 절차와 도구(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서술한다는 것이다. 그 실천적 수단은 다소 억압적인 법령과 규칙 등 명령의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직·간접세나 실업수당 등과 같이 재정의 형태를 띠 수도 있으며, 통계와 같은 지식의 형태를 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되었든 이 권력의 수단은 억압하고 금지하고 통제하는, '죽이는(*faire mourir*) 권력' 또는 '살게 내버려두는(*laisser vivre*)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세우고 장려하며 '살리는(*faire vivre*) 권력' 또는 '죽게 내버려두는'(*laisser mourir*) 권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규율권력과 구별될 수 있다. Foucault는 이처럼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근대에 등장한 권력을 '생명권력'(bio-power)으로,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국가통치를 '생명정치'(bio-politics)로 개념화했다.

여기에서 Foucault는 생명권력이 억압적 권력과 달리 인간의 행태를 더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찰의 기술에 의존하며, 이 관찰의 기술은 거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까지 개입한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두 가지 기술에서 발견한다. 하나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집단의 행태를 규제하는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육체를 개별화하며 개입하는 기술이다. 출생률과 사망률, 평균수명 등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전자의 예라면,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의학의 형성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등장, 상·하수도과 같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그리고 주거위생, 식품위생, 보건위생을 위한 교육 등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더욱이 Foucault에 따를 때 이 기술들은 개인 즉, 자유로운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절차와 도구가 각각의 개인에 도달하여 그들의 행동과 태도, 담론, 학습과정,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개개인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렇게 작동하는 통치의 도구들은 각 개인을 유형화하고, 각자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며, 개인의 주체 자체를 형성한다. 환언하면 주체는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이 상정하듯 개인의 고독한 인식작용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효과로 주어지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의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관계이고 따라서 그만큼 다양한 기술을 동원하는데, 그 다양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주체적인’ 행동이다. 이 행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규율과 같이 자기통제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새로운 자유의 공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초에 Foucault는 이를 주체화(subjectification)의 과정으로 기술하고, 이를 연구하면서 애초에 뒤로 밀려난 듯 보였던 주체의 문제를 자신의 연구에서 중심적 주제로 복귀시킨다.

이는 곧 관리에 있어서도 감시자 또는 관리자의 ‘주권적인(절대적인) 관리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조직과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자들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제 관리의 권한과 권력을 담지한 자들은 감시자나 관리자 뿐 아니라 조직에 관련되는 모든 자들이며, 이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관리의 기술이 곧 통치의 기술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리도 개인에 대한 통치의 한 형태

이지만,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치는 이제 더 이상 규율권력이 아니라 ‘생명 권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Foucault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통치와 국가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역시 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개인에 대한 통치에 다름 아니며’(Foucault 1978: 640),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리와 조직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한 생명권력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2. 조직연구 동향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이 조직 연구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리가 개인에 대한 통치의 한 형태이고,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치는 억압적 정치권력과 다르게 규율권력이자 생명권력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조직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 큰 설득력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억압적 정치권력과 구별하여 관리권력(managerial power)이라고 한다면(Pezet 2004: 180-184), 관리 권력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통치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원리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먼저 Foucault 철학의 중심적 사유 가운데 하나인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주목했다. 먼저 Bougen(1994)은 1920년대에 새로운 성과배분 방식이 도입된 영국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며, 사측과 노측이 새로운 경영방침을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과학지식과 국가(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를 때, 1차 세계대전은 군수시장의 확장을 기회로 기업의 번영을 보장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채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변화도 유인한 시기였다. 그러나 1920년대 말, 종전과 함께 군수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사측과 노측이 기업 이윤을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을 합의했는데, 이 때 회계 시스템과 함께 과학적 관리론의 연구 성과가 생산부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으로써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 때 국가는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 입법을 통해 조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관리 실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Knight(1992)는 국가와 기업의 관계가 이처럼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출현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 예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을 든다. Knight는 시장이 전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근원으로 부상하자 국가가 시장관리, 수요·공급 조절, 기업회계, 단체교섭 등에 관한 새로운 관리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도록 장려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지식의 생산과 전파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한 2차 대전 직후의 노력은 한국을 포함하여 국가주도 경제발전을 지향했거나 지향하는 현대 개발도상국가의 개발전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Bougen의 연구가 기업 내 노·사 협상을 통해 그리고 Knight의 연구가 새로운 관리지식의 등장을 통해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추론하고 있다면, Miller & Rose는 정치권력과 기업의 관계를 경제정책을 통해 설명한다. Miller & Rose(1990: 88)는 국가의 행위가 정책을 통해 구현된다면 국가의 정책이란 목적과 계획이 수립되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면서, 국가는 두 개의 기제를 통해 경제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원격통제이론을 발전시켰다. 하나는 경제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행위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계산(calculation) 절차를 변화시키는 것이다(Miller & Rose 1990: 76). 그리고 Miller(1991)는 그 예로 투자선택방법을 제시한다. 1960년대에 경제성장 개념이 정치와 경제분야의 논쟁을 지배하고 경제성장 전략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비용·편익 분석의 순현재가치(net profit value) 개념을 동원해 국가가 기업의 투자계획을 선정하며 기업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기업의 재무상황을 한 눈에 보여줄 뿐 아니라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회계시스템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Hopwood 1990).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에 의존하는 조직연구의 두 번째 경향은 다양한 층위에서 관찰되는 통치성 사이의 관계와 이들이 서로 어떻게 분절(articulation)하는지 즉,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분화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가장 간단한 예는 정치권력에 의한 사회정책의 실시가 기업의 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관리방식이 정치권력의 통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Pezet의 연구이다. Pezet(2000)는 프랑스에서 1970년대 초에 급여를 월급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일반화된 것은 금속 관련 기업들의 관리 혁신에서 비롯하였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월급제 실시는 금속·탄광노조와 기타 노조 사이에 노동자 경력관리제도에 기

초하는 직업분류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성과라고 한다.

다양한 층위의 통치성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어서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통치성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연구는 앞서 소개한 사례연구들이 문제화(*problématisation*)라는 개념을 제기하면서 부터이다. 문제화란 ‘사유를 위한 대상을 새로 구축하는 일’(Foucault 1984d: 670)이며, 사유의 주체를 정의하는 일이다. Foucault는 정신병리학에서 정신병자를, 사법제도에서 일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문제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 바 있다. Foucault(1984b: 19-20)는 ‘광기는 사회와 의학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며 정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의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문제화되었다 (...) 범죄와 범죄 행태는 규율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하며 문제화되었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국가와 기업의 통치성이 교차하며 바람직한 시장 상황과 그렇지 않은 시장 상황을 정의하는, 문제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Knight(1992)는 국가 간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Michael Porter가 만든 다이아몬드 모델이 전략이라는 개념을 사이에 두고 기업의 통치성과 국가의 통치성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즉, 산업조직론에서 발전된 산업구조분석을 기업전략에 적용한 다이아몬드 모델은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소비자의 교섭력 등 다섯 가지 경쟁력(5 forces) 요인이 산업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국가 발전전략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상호 교차하며 공동의 위협을 정의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통치성과 국가의 통치성은 이처럼 통치의 대상을 공동으로 규정하고 정의하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제도와 권력의 장치들을 만든다.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에 의존하는 조직연구의 세 번째 경향은 통치의 대상이 반드시 집단적 행위자들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 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기업의 통치성이 기업 경영진과 국가 그리고 노조 3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 개인의 주체 안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Igalens(2002)는 Foucault 저작의 3기 즉, 윤리학의 시대에 개진된 개인주의의 개념에 의지하여 기업이 조직 내에서 확산하는 개인주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했다. Foucault(1984c: 59)에 따를 때 개인주의란, ‘개인의 독특함(*singularité*)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과 제도에서 자기가 취하는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절대적 가치’이자 ‘자기와 맺는 관계의 강도 즉, 자기 자신을 교정하고 정화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식의 대상이자 행위의 영역으로 취하는 형태의 강도’를 의미한다. Igalens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규범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은 규율을 강화하기보다 개인의 주체화에 의존하는 인사관리 방안을 발전시켰다고 지적한다. 기업 관리의 동태성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개인의 주체를 강화하는 장치들을 고안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의 발전, 재택근무제의 도입, 맞춤형 의료보험 등은 물론이고 개인성과평가 제도의 도입은 공동체로 간주된 조직을 개인별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기업 내에서 개인주의를 조장하여 구성원 간 관계를 보다 개인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인사관리를 규율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윤리적 행태에 기초하여 시행하자, 한때 조직의 통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개인주의가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의 자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한 때 국가와 기업, 조합 등 ‘제3자’가 관리하던 종업원의 경력이 이제는 종업원들 각자에게 ‘자기 통치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외부 행위자의 개입이 없어도 자기의 경력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의 종업원은 물론 현재의 종업원도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적인 자기관리’가 연출되고 있다. 또한 인적 자원관리의 개인화 기술이 감시의 기술로 전환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Styres(2001)는 하위 직급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권한이양(empowerment)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자기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규칙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권한이양이 노동자 각자에게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 권한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직 내에는 다양한 관리양식이 동시에 공존하게 마

런이고, 권한이양은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IV. 결론: Foucault 권력론의 함의와 기여

이 글은 지금까지 Foucault 철학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Foucault가 제안하는 권력개념에 따라 수행된 조직 연구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 따를 때 Foucault의 권력개념은 계보학의 시대에서 윤리학의 시대로 이행하는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규율권력에서 생명권력으로 그 내용과 형태가 진화해 갔다. 이 두 개념은 중요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되기 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cf. <표>).

<표> Foucault 권력개념의 진화

구 분		규율권력	생명권력
공통점	권력에 대한 관점	관계론	
	권력의 정의	전략적 관계	
	분석 대상	미시권력(권력의 구체적인 작동방식)	
차이점	경험적 분석대상	학교, 공장, 병원, 감옥 등 근대 국가 형성기에 발현한 조직과 사회제도	국가장치와 제도, 정책
	권력의 속성	'죽이는 권력' 또는 '살게 내버려두는 권력'	'살리는 권력' 또는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
	권력의 목표	순종적인 개인의 생산·조형	생명의 보존과 증진·강화
	권력의 개입대상	개인의 육체	인구 전체의 생명 (개인과 집단의 생명)
	권력의 기술	개체화·객체화 대상화·예속화	집단화·주체화 능동적 참여·자율적 관리

먼저, 두 개념 모두 권력에 대한 관계론적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권력의 개념도 전략적 관계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며, 권력의 '본질'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규율권력이 사회제도의 작동 양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의 육체를 대상으로 개입하며 감시와 통제의 기제를 통해 개인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생명권력은 국

가장치와 제도, 정책의 발현을 분석하며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능동적 참여와 자율적 관리의 기제를 통해 생명의 보존과 증진·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cf. 진태원 2006: 230-232).

이같은 Foucault의 권력 개념을 조직연구에 도입한 초기 연구자들은 기업의 권력현상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아니라 주로 회계와 통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현실 조직 내에서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규율과 통제의 기제를 밝혔지만 그것은 Foucault 연구의 단면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들은 규율과 감시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 통치성이라는 보다 넓은 영역으로 관심분야를 옮겨갔으며, 이때부터 조직 연구는 세 가지 층위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조직의 규율화를 위한 권력의 개입방식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을 유도하는 통치의 기술과 원리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관리를 통해 조직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진 개인의 통치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통치 방식에 대한 연구는 규율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무력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규율화에 대한 연구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세 가지 층위 가운데 세 번째 연구영역 즉, Foucault가 후기에 이르러 모색한 통치 방식에 대한 분석은 푸코 자신의 표현을 빌릴 때 주체화의 양식(modes of subjectification)에 대한 탐구로서, Foucault는 이를 통해 주체는 ‘왜 권력에 순응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인간은 왜 저항하는가’(Gurr 1970)라는, 사회학의 고전적인 질문을 전복시킨 것이며 이러한 시각의 전복은 권력현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지배자(또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피지배자(또는 저항자)의 관점으로 치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Foucault의 질문을 통해 체제의 전복보다는 유지가(‘왜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하는가?’), 무질서 보다는 질서가(‘왜 가부장적 이성 가족 문화는 지속하는가?’) 우리의 보편적 경험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체제와 질서의 전복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oucault의 지식/권력 개념을 원용하자면, 저항의 이유와 기제를 분석할 경우 여기에서 생산된 지식이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권력에 봉사하겠지만, 순응의 이유와 기제를 이해할 경우 저항의 기제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화의 양식에 대한 연구는 성(性) 정체성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Foucault 자신의 문제에 대한 연구이기도 할뿐더러, 전체 사회의 조직과 관리에 있어 정치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이 권력에 순응하는 개인과 집단의 자기 규율 기제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화의 양식이 주체의 규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속화(*assujettissement*)의 양식과 분명히 구별되며, 또 비로소 Foucault 철학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저항의 문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시도가 조직 연구에서 얼마나 반영 또는 창조적으로 계승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cf. 이문수 2010: 17). 이는 Foucault 자신마저도 ‘추상적 논쟁’과 ‘끝없는 비평’에 머무를 뿐 구체적인 대안 곧,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Taylor 1984, Feldman 2002) 일반화된 비판에 노출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원전의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후속연구가 채워나갈 부분이라고 하겠다.

미래의 조직연구가 지배와 피지배, 관리와 저항의 대립 항을 극복하고 Foucault가 미완으로 남겨놓은 주체화 과정의 내적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단초는 예를 들어 Bourdieu가 전개한 아비투스(*Habitus*)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Bourdieu 역시 Foucault와 동시대인으로서 프랑스 좌파 지식인 사회의 문제들을 공유하며 왜 피지배자는 지배의 관계를 용인하고 수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바꿔 말하면, Bourdieu 역시 Foucault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구조주의의 구조결정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푸코가 자신의 철학체계를 후기 구조주의라고 명명한데 반해 Bourdieu는 구조주의적 구성주의(*constructivisme structuraliste*)를 표방하며 주체(개인의 주관)와 사회구조(객관)이 어떻게 ‘맞물려’-상호작용하며-재생산되는지를 탐구했다. Bourdieu(1987: 147)는 구조주의를 통해서 행위자들의 의식과 의지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구조가 현실에 존재하고, 이 객관적 구조는 행위자들의 실천과 표상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제약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구성주의를 통해서만 행위자의 지각과 사고, 행동의 표상이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그가 객관과 주관이 상호작용하는 기제로 개념화한 아비투스를 구성하고 나아가 사회구조, 특히 장(*champ*; 場)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즉, 행위자의 지각과 사고, 행동의 총체는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전략적 선택을 아우르는 아비투스를 구성하며, 일상의 행위자들은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생활의 장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주요 개념이다. 여기에서 아비투스⁹⁾란 객관적 실재의 세계를 내면화시키는 기제이며, 장(champ)¹⁰⁾이란 내면의 아비투스를 외면화시키는 무대이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Bourdieu(1980: 100-101, 1982: 37-38)는 Foucault와 동일하게 인간의 인식체계를 객관화(objectification)의 차원과 주관화(subjectification)의 차원, 2개 차원으로 대별하며 표상과 언어가 사회현실 자체로 환원되지는 않으나 사회현실의 구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논증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 행위자는 먼저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자신의 주관적 표상을 배제하는 객관화의 과정을 거쳐 현실을 구성한다. 이 객관화의 과정을 통해 현실을 구성하면 이렇게 형성된 현실이 행위자의 행동(상호작용)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객관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현실은 그 자체로 다시 주관적 표상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주관적 표상은 개인 또는 집단이 객관적 구조를 변동 또는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상적인 투쟁에서 그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기초가 된다(Bourdieu 1987:

9) 아비투스란 행위자의 주관에 형성되어 있는, 유·소년기의 1차적 형성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2차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사회구조이다. 외부 세계의 내면화를 통하여 행위자의 몸과 머리에 학습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느끼고, 사유하고 행동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성은 행위자가 자라는 환경과 사회적 경로에 따라 행위자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경향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지만 행위자의 저항 정도가 약할 경우 비교적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비투스는 사회구조의 반영물에 불과한 것인가? 아비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비교적 반복적인 재생산 구조를 가지지만 자기교정적(*autocorrectible*) 성질을 가져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입력된 프로그램이 작동되다가도,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반응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Bourdieu의 관찰이다.

10) 장(champ)이란 행위자들의 내면이 외면화되어 드러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전체 사회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한 사회적 공간이다. 예를 들어 재계와 학계, 정계, 예술계, 언론계, 스포츠계 등은 각 부문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며 각자의 공간에서 고유하게 통용되는 재화를 가지고 전체 사회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누린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공간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공간은 권력관계를 유지 또는 전복시키기 위한 경쟁과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사회적 공간은 기존의 참여자들이 자기들의 독점적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세우기 때문에 새로 참여를 원하는 외부의 행위자들과 진입을 둘러싼 투쟁을 벌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구조기능주의의 체계가 경계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반면 Bourdieu는 장의 경계 확정 자체가 투쟁의 대상임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동태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장에서 통용되는 재화를 자본으로 비유하며 이 자본을 경제적 자본(돈) 뿐 아니라 문화자본, 정치적 자본, 사회자본 등으로 세분화하여 Marx의 경제결정론을 탈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150).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남성중심의 지배구조를 정당화시키며 여성들의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남성 지배를 상징적 폭력으로 분석한다(Bourdieu 1990, 1997).

이처럼 Bourdieu는 외부세계의 내면화와 내부세계의 외면화로 특징지어지는 ‘이중운동’을 통해 현실과 구조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학계, 정계, 재계의 재생산구조와 변동과정, 작동논리를 분석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Bourdieu 사회학이 객관적인 구조의 영향과 행위자들의 주관적 해석을 통한 전략적 선택이 사회현실을 구성한다고 보며 양자의 상호작용 관계를 논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객관적 구조의 존재에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이다¹¹⁾. Bourdieu에게 ‘상호작용이란 쌍방 간 행위 과정에 관철되는 구조의 효과를 숨기는 것’(1987: 151)이며 ‘객관적 관계가 일시적으로 표면화되는 것’(1990: 34)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Bourdieu 사회학의 구성주의란 구조와 현상, 객체와 주체의 대립이 아니라 진짜 현실(구조화된 사회적 관계)과 가짜 현실(행위자의 주관적 해석에 기초한 현실)의 대립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행위자의 주관과 의지가 사회현실의 구성에서 능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Foucault가 상정한 주체화의 과정이 Bourdieu 사회학에서처럼 구조로 환원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동료 연구자들을 초대한다¹²⁾.

11) Bourdieu가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의지보다 객관화된 사회 질서 또는 구조의 우선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그가 행위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그의 전 저작에서 행위자를 지칭할 때 *acteur*(actor)가 아니라 *agent*(agent)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자의 주관성과 의지가 사회구조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일관되게 암시한다.

12) Foucault는 ‘자기에 대한 배려’(*souci de soi*) 또는 ‘자기에 대한 기술’(*techniques de soi*)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이 외부 세계 또는 타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도 자신의 연구 틀 안에 포섭했다. Foucault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고전을 탐독하며 에피테쿠스와 세네카의 원전에서 ‘자기에 대한 배려’라는 표현을 차용하고 자기에 대한 배려가 영양학(*la diététique*), 경제학(*l'économique*), 그리고 성애(*l'érotique*)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Foucault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를 보장하고 사회적 존재를 지지하는 기술 즉, ‘자기에 대한 기술’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은둔, 명상, 운동, 독서, 말하기와 글쓰기, 타인과의 교제와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인간 활동이 나 자신을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또 이 모든 것이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고했다. 특히 고대 철학자들의 독서노트(*hupomnē*)

참고문헌

- 김동원. (2009). 푸코의 해체주의 담론을 통해 본 정부혁신의 규율 전략. 한국행정학보. 43권 3호, p.1-23
- 김부용. (2010). 권력의 행사방식 논의에 대한 푸코의 비판과 보완. 철학사상. n° 38, p.239-267
- 이문수. (2010). 사목권력과 생명권력: Foucault가 보는 행정권력의 기원과 현재. 한국행정논집, 22권 3호, p.939-958
- 진태원. (2006). 생명정치의 탄생: 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 사회, 19권 3호, p.216-237
- 함재봉. (1994). 미셸 푸코의 권력관과 정치 비판. 현상과 인식, n° 60, p.135-154
- Agamben G.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Alvesson M. & Deetz S. (1999). "Critical Theory and Postmodernism.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Studies", in Clegg S. & Hardy C. (Eds.), Studying Organization. Theory and Method, Sage, p.185-211.
- Bain P. & Taylor P. (2000). "Entrapped by the 'Electronic Panopticon'? Worker Resistance in the Call Center", New Technology, Work and Employment, vol. 15, n° 1, p.2-18.
- Bhimani A. (1994). "Accounting and the emergence of 'economic man' ",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vol. 19, p.637- 674.
- Bougen P. (1994). "Accounting and Labour: Integrations and Disintegrations", in A.G. Hopwood et P. Miller (Eds.), Accounting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38-167.

-mata)는 타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담론으로 만드는 자기화 과정으로서 독서와 글쓰기의 세계에서 타자와 자기 자신을 이어주는 주체화의 기재임에 주목했다. 주체화 과정에 대한 Foucault의 이같은 논의는 Foucault가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인간의 주체형성 과정을 탐구하되 이를 개인의 성장사에서 찾는 정신분석학(특히 Freudian psychoanalysis)으로 환원하지도 않고 Bourdieu처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의 작용에 선차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만의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개인과 집단이 주체화의 과정에서 조직의 규율과 권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지, 그 과정과 메커니즘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기여가 기대된다.

- Bourdieu. P. (1980). *Le Sens pratique*, Minuit
- _____. (1982). *Ce que parler veut dire: Economie des échanges linguistiques*, Fayard
- _____. (1987). *Choses dites*, Minuit
- _____. (1997). *Méditations pascaliennes*, Seuil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 Callon, M. (1998). Des différentes formes de démocratie technique, *Annales des Mines*, n° 9, p.63-73.
- Collins H. & Evans R., (2002). « The third wave of sciences studies; studies of expertise and experience »,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32, n°2, p. 235-296
- _____. (2007). *Rethinking expertis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Cusset F. (2003). *French theory. Foucault, Derrida, Deleuze et Cie et les mutations de la vie intellectuelle aux États-Unis*, La Découverte.
- Dreyfus H. & Rabinow P. (1982).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eldman S. (2002). *Memory as a moral decision: the role of ethics in organizational culture*, Transaction publishers.
- Foucault M. (1963). *Naissance de la clinique: une archéologie du regard médical*, Gallimard.
- _____. (1966).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Gallimard.
- _____. (1971a). *L'ordre du discours. Leçon inaugurale au Collège de France prononcée le 2 décembre 1970*, Gallimard.
- _____. (1971b). *Nietzsche, la généalogie l'histoire*. in *Hommage à Jean Hyppolite*, PUF, p.145-172, repris dans *Dits et écrits 1954-1988*, édition établie sous la direction de Defert D. & Ewald F., tome 2, 1970-1975, Gallimard, 1994, p.136-156.
- _____. (1972).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Gallimard.
- _____. (1973). *Moi, Pierre Rivière, ayant égorgé ma mère, ma soeur et mon frère. Un cas de parricide au XIXe siècle*, Gallimard-Julliard.
- _____. (1975).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Gallimard.
- _____. (1978). “La gouvernementalité”, *Cours du Collège de France*, années 1977-1978: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4e leçon, 1er février 1978, *Au Aut*, n° 167-168, p.12-29, repris dans *Dits et écrits 1954-1988*, tome 3, 1976-1979, p.635-656.

- _____. (1980). “Entretien avec Michel Foucault”, entretien avec D. Trombadori, Paris fin 1978, Il Contributo, 4e année, n° 1, janvier-mars, repris dans Dits et écrits 1954-1988, tome 4, 1980-1988, p. 41-95.
- _____. (1984a).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1, La volonté de savoir, Gallimard.
- _____. (1984b).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2, L’usage des plaisirs, Gallimard.
- _____. (1984c).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3, Le souci de soi, Gallimard.
- _____. (1984d). “Le souci de vérité”, Magazine littéraire, n° 207, repris dans Dits et écrits 1954-1988, tome 4, 1980-1988, p. 668-678.
- Fox S. (1989). “The Panopticon: From Bentham’s Obsession to the Revolution in Management Learning”, Human relations, vol. 42, p.717-739.
- Gay P., Salaman G. & Rees B. (1996). “The Conduct of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Conduct: Contemporary Managerial Discourse and the Constitution of the ‘Competent Manager’”,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33, n° 3, p.263-282.
- Gurr T.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bermas U. (1981). Thomas McCarthy 역(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 Boston: Beacom Press
- Hardy C. & Clegg S.R. (1999). “Some Dare Call it Power”, in Clegg S.R. & Hardy C. (Eds.), Studying Organization. Theory and Method, Sage, p.368-387.
- Hatchuel A. (1999), “The Foucauldian Detour: A Rebirth of Organization Theory ?”, Human relations, vol. 52, n° 4, p.507-519.
- Hopper T. & MacIntosh N. (1998), “Management Accounting Numbers: Freedom or Prison. Geneen versus Foucault”, in McKinlay A. & Starkey K. (Eds.), Foucaul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From Panopticon to Technologies of Self, Sage, p.126-150.
- Hopwood A.G. (1987), “The Archeology of Accounting System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vol. 12, n° 3, p.207-234.
- _____. (1990), “Accounting and Organization Change”, Accounting Auditing Accountability Journal, vol. 3, n° 1, p.5-27.
- Igalens J. (2002), “La place du sujet”, Communication au Colloque International “Organiser après Foucault ”, École des Mines de Paris, Université de Nottingham, HEC et

- Université d'Évry, Paris, 12-13 décembre 2002.
- Jackson N. & Carter P. (1998), "Labour as Dressage", in A. McKinlay et K. Starkey (Eds.), *Foucaul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From Panopticon to Technologies of Self*, Sage, p.49-64.
- Knight D. & Morgan G. (1991), "Corporate Strategy, Organizations and Subjectivity: A Critique", *Organization Studies*, p.251-273. McKinlay A. et Starkey K. (Eds.) (1998), *Foucaul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From Panopticon to Technologies of Self*, Sage.
- Knight D. (1992) "Changing Spaces: The Disruptive Impact of a New Epistemological Location for the Study of Management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7, p.514-536.
- Lascoumes. P. dir. (1995). *Actualité de Max Weber pour la sociologie du droit*, LGDJ
- _____. (2007), "La Gouvernamentalité: de la critique de l'État aux technologies du porvoir", in *Le Portique. Revue de philosophie et de sciences humaines*. n° 13-14
- Miller P. & O'Leary T. (1994), "Governing the Calculable Person" in Miller P. & Hopwood A.G. (Eds.), *Accounting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acti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98-115.
- Miller P. & Rose N. (1990) "Governing Economic Life", *Economy and Society*, vol. 19 n° 1, repris dans Gane M. & Johnson T. (Eds.) (1993), *Foucault's New Domains*, Routledge, p.75-105.
- Miller P. (1991), "Accounting Innovation beyond the Enterprise: Problematizing Investment Decisions and Programming Economic Growth in the U.K. in the 1960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vol. 16, n° 8, p.733-792.
- Pezet E. (2000), "Négociation collective et gouvernement des individus dans l'entreprise: la négociation des classifications dans la métallurgie. 1968-1975", *Entreprises et Histoire*, n° 26, p.74-88.
- _____. (2004), "Discipliner et gouverner: influence de deux thèmes foucaultiens en sciences de gestion", *Finance Contrôle Stratégie*, Volume 7, n° 3, Septembre 2004, p.169-189.
- Russ J. (1980), 은재호 역(1992), *지식과 권력 1, 도서출판 예하*

- Savage M. (1998) “Discipline, Surveillance and the Career: Employment on the Great Western Railway 1833-1914 ”, in A. McKinlay et K. Starkey (Eds.), Foucaul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p.65-92.
- Styhre A. (2001), “Kaisen, Ethics, and Care of the Operations: Management after Empowermen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38, n° 6, p.795-810.
- Taylor C. (1984). “Foucault on freedom and truth”, Political theory 12(2): 152-183.
- Townley B. (1994), Refram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Power, Ethics and the Subject at Work, Sage.